"카페야? 도서관이야?"

이마트위드미 광주 이색매장 떴다

상권 특성 반영 매장 차별화 전략 시도
광주본점 지역 최초 프리미엄매장 눈길
동림점, 학생고객 겨냥 스터디룸도 마련

이마트위드미가 광주에 선보인 이색매장을 선보였다. 광주본점 '주스바'와 광주동림점 '스터디카페' 모습.

28일 오후 1시30분께 광주 서구 광천동 씨엘병원 인근에 새로 오픈한 이미트위드미 광주본점에는 주변 회사원과 병원 직원들로 가득하다. 이들은 매장에서 직접 만든 수제 샌드위치와 생과일주스, 생과일 스무디를 주문, 완제품을 기다리고 있었다.

김은미씨(32·여)는 "매장에서 직접 샌드위치와 생과일주스를 만들어 판매한다는 동료의 이야기를 듣고 매장을 방문했다"며 "일반 카페의 절반 가격이어서 앞으로 매장을 자주 찾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마트위드미가 광주지역에 이색매장을 선보이며 다른 편의점들과 차별화 전략에 앞세워 브랜드 혁신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마트위드미는 직영점을 테스트베드로 활용, 지역 상권 특성을 반영해 차별화 매장을 내고 있다. 아직 다른 편의점 브랜드에 비해 덜 알려진 만큼 직영점을 이마트위드미를 알리는 마케팅 창구로 활용한다는 전략이다.

이마트위드미는 이달 초 광주사무소를 개소하고 광주본점과 광주동림점에 이색 매장을 추진했다.

이마트위드미 광주본점은 샌드위치와 생과일주스, 생과일스무디를 직접 만들어 판매하는 '주스바'를 선보였다. 지난 20일 문을 연 광주본점은 하루 평균 350명의 고객이 방문하고 200만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광주본점은 음료를 캔에 담아 주는 '캔 실링(Sealing)' 서비스와 휴대폰 무선충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사무실과 병원이 밀집해 유동인구가 많은 상권 특성을 반영해 점심시간에도 매장 이용이 용이하도록 셀프계산대를 운영하고 있다.

기존의 편의점과 다른 상품 진열과 고객 편의시설로 고객들을 끌어들이고 있다. 광주본점을 찾는 고객들은 이마트 간편식 피코크를 진열한 '피코크 냉장고'와 주스바, 매장 입구에 자리잡은 이마트 노브랜드 상품을 관심을 갖고 매장을 둘러봤다.

이마트 노브랜드는 이마트 PL상품 중에서 가성비가 좋은 상품들로 과자, 냉장 및 냉동식품을 선보였다. 대표 상품은 '감자칩오리지널', '자색고구마칩', '깨끗한 물티슈', '쌀밥한공기' 등이다.

가정간편식(HMR)을 중심으로 만든 이마트 자체 식품 브랜드 '피코크'도 판매하고 있다. 주로 냉장 및 냉동식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시원한 부산어묵탕', '에그포테이토 샐러드', '새우볶음밥', '김치왕만두' 등 1인 가구가 간편하게 조리해서 먹을 수 있는 제품들이 인기다.

이마트위드미 광주본점 류기만 점장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는 인근 사무실과 병원 직원들이 점심으로 도시락, 수제 샌드위치, 생과일주스, 커피 등을 구입한다"며 "오후 6시부터는 병원에 입원한 환자와 게스트하우스를 찾은 관광객들이 야식과 끼니를 해결할 수 있는 제품을 구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본점은 광주종합버스터미널과 신세계백화점 중심으로 인근에 숙박시설과 아파트 단지가 발달된 상권에 맞춰, 프리미엄 샌드위치를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지난 16일 문을 연 이마트위드미 광주동림점은 학생들이 많다는 상권 특성을 고려해 매장 안에 무료 스터디 공간인 'Free Study Cafe존'을 만들고 책상과 의자를 넉넉하게 뒀다. 인테리어도 책으로 꾸며 도서관 같은 분위기를 연출했다.

그 외에도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종류의 도시락을 판매하며, 식사를 하면서 휴식할 수 있는 휴게공간도 제공하고 있다.

김성영 이마트위드미 대표이사는 "광주지역 내에 이 같은 프리미엄 매장이 오픈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며 "앞으로 지방 주요 거점지역에 색다른 콘셉트의 매장을 열어 이마트위드미만의 차별화 상품과 고객 편의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준 높은 매장을 선보일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마트위드미는 광주본점은 오픈을 기념해 오는 7월 2일까지 매일 선착순 100명에게 '이프레소 커피'를 100원에, 생과일 주스를 500원에 제공하는 이벤트를 펼친다.

/황애란 기자

농촌 공동체 활력 되찾는다

농협광주본부-KT&G 전남본부 업무협약

농협광주지역본부(본부장 박태선)는 고령화와 해체 위기를 맞은 시골마을에 도시민을 유인하여 농촌 활력을 되찾기 위해 지역본부 회의실에서 KT&G 전남본부(본부장 이 승우)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28일 밝혔다. 또 이승우 KT&G 전남본부장을 평촌마을 명예통장으로 위촉했다.

'또 하나의 마을 만들기' 운동은 기업CEO 및 단체장 등을 농촌마을의 명예통장을 시장이 위촉하고 소속 임직원을 명예주민으로 참여시켜 상호교감과 인정을 나누며 마을의 숙원사업을 지원하는 등 점차 활력을 잃어가는 농촌마을에 '또 하나의 마을'을 만드는 사업이다.

명예통장 위촉을 받은 이승우 본부장은 "아름다운 무등산과 친환경 농산물이 유명한 평촌마을 명예통장이 되어 기쁘다"며 "마을주민들과 자주 만나 소통하며 농촌마을과 함께하는 봉사활동 등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박태선 농협광주본부장은 "광주시와 협력을 통해 고령화된 농촌마을을 대상으로 명예통장 위촉을 계속해 오고 있다"며 "지역의 많은 기업체CEO들이 함께 동참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황애란 기자

제3차 외국인근로자 배정 신청
중기중앙회, 내달 3~17일 접수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오는 7월3일부터 17까지 2017년도 제3차 외국인근로자 배정신청을 접수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배정은 고용노동부의 2017년도 제조업 쿼터의 시기별 배정계획에 따른 것으로 1차 6,713명, 2차 6,567명을 배정했다. 3차에 9,100명, 오는 10월 4차에 9,100명을 배정할 계획이다.

중기중앙회를 통해 7월 17일까지 배정신청이 마감되면 고용부에서 오는 7월 28일자에 고용허가서 발급대상 사업장을 확정 발표하며 8월 3일부터 고용허가서 발급을 진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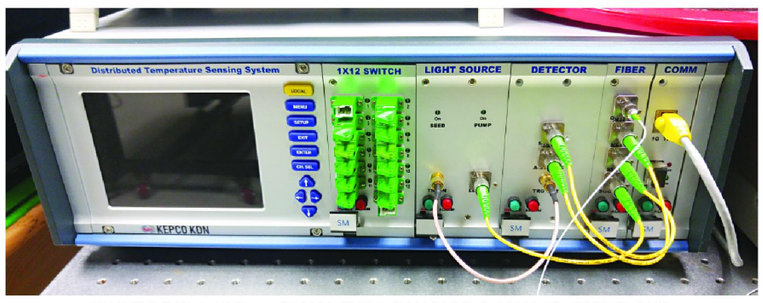
신청대상 국가는 네팔,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미얀마, 동티모르 등 15개국이며 고용노동부 워크넷(worknet.go.kr)을 통해 사전에 내국인 구인신청(14일경과)이 돼있어야 한다.

/황애란 기자

광섬유 분포형 온도 모니터링 시스템 국산화

화재 등 사고 예방…다양한 기간산업 적용도

한국광기술원(원장 김영선)은 지중전력선 송전용량 산출 및 화재감시를 위한 '광섬유 분포형 온도 모니터링 시스템(Distributed Temperature Sensor, DTS)'을 한전KDN㈜(대표 임수경)과 공동으로 개발했다고 28일 밝혔다.



한국광기술원과 한전KDN이 공동개발한 '광섬유 분포형 온도 모니터링 시스템'

한국광기술원 스마트광전연구센터 김명진 박사는 "국산화에 성공한 DTS 기술은 송전설비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상 온도 변화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 화재 발생 전에 신속한 예방이 가능하다"며 "특히 화재발생 후 알람이 작동하는 기존의 전기식 센서와는 달리 전력선을 따라 포설된 광섬유를 이용해 최장 30㎞에 이르는 장거리 온도분포를 직접 모니터링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광기술원 연구팀은 한전KDN㈜과 공동으로 개발한 DTS시스템을 서울, 인천, 부산 지역 지중전력구에 시범적으로 설치해 운용하는 등 사업화를 위한 성능검증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광섬유 분포형 온도 모니터링 시스템은 설비의 고도화, 노후화 및 복잡도 증가에 따른 사고발생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 전력계통 뿐만 아니라, 가스시설, 정유·화학플랜트시설, 원전시설 등 다양한 기간산업에도 폭넓게 적용할 수 있다.

한국광기술원 김영선 원장은 "그동안 전적으로 해외에 의존하던 DTS장비의 국산화로 지중송전케이블 뿐만 아니라, 가공지선 등 다양한 전력설비에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를 통해 한층 더 효율적인 전력운영 체계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황애란 기자

천연염색 기술 창업교육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재)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원장 오창렬)이 만40세 이상 예비창업자 25명을 대상으로 천연염색기술 창업교육을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천연염색 기초이론과 색소추출기법, 염액제조 및 매염처리기술 등 전문기술교육과 기업가정신, 비즈니스모델 등 창업기본교육을 실시, 예비창업자들의 성공창업 기회 제공한다.

교육은 오는 8월 3일까지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 두 차례씩 영암에 위치한 천연염색 전문 기업 (사)예담은 규방 문화원에서 진행된다. 총 60시간의 교육과정 중 85%이상을 이수한 교육생에게는 수료증이 발급된다.

수료증은 전남 시니어 기술창업센터 입주시 가점사항으로 적용된다. 평가를 통해 우수 수료생에게는 창업 아이템에 대한 컨설팅 및 마케팅 지원의 특전도 주어진다.

/황애란 기자

상반기 민간APT 분양가 3.3㎡당 평균 1,011만원

화정동 화정 엘리체 퍼스티지 1,309만원 최고

올해 상반기 광주지역에 공급된 민간분양 아파트는 3.3㎡당 평균 1,011만원, 약 32대 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광주지역 부동산 전문 사이트 사랑방부동산이 올해 상반기 광주에 공급된 민간아파트 분양가를 분석한 결과 발코니 확장비를 포함한 3.3㎡당 분양가가 1,000만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광주에서는 7개 단지 3,243가구(조합원 분양분 포함 총 5,559가구)가 공급됐다. 지난해 상반기 민간분양 아파트 공급량 14개 단지 5,820가구의 절반 수준이다.

아파트의 기준층 기준 평균 분양가는 3.3㎡당 977만원으로 발코니 확장비를 포함하면 1,011만원이다.

지난해 발코니 확장비를 포함한 평균 분양가인 936만원에 비해 75만원 가량 올랐다.

올해 가장 비싼 분양가를 기록한 아파트는 광주 서구 화정동의 화정 엘리체 퍼스티지로 기준층 기준 3.3㎡당 1,309만원(발코니 확장비 포함)에 공급됐다.

가장 낮은 분양가를 기록한 단지는 송정주공을 재건축한 우산동 중흥S클래스 센트럴로 기준층 기준 3.3㎡당 865만원(발코니 확장비 포함)이다.

올해 상반기 광주에 공급된 민간분양 아파트는 모두 1순위 청약 마감했다. 평균 청약 경쟁률은 약 32대 1이다. 올해 상반기는 일반분양보다 임대아파트의 공급이 두드러졌다.

/서미애기자